

역대 최고 쉬운 수능 수학B 만점이 1등급

전 영역 만점 광주 1·전남 1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상 최초로 영역별 만점자 수가 1등급 커트라인(4%)을 넘었다. 수학B형이 너무 쉬워 만점자 비율이 4.3%에 달했다.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주저앉는다는 의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에게는 3일 성적표가 개별 통지된다.

〈관련기사 7면〉

올해 수능은 영어와 수학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워 만점자가 속출했다.

수학B형 만점자 비율은 무려 4.3%에 달했다. 역대 수능 사상 영역별 만점자 수가 1등급 컷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자연계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수학B형이 변별력을 상실함에 따라 탐구영역이 대입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학B형 만점자 비율은 2011학년도 0.02%, 2012학년도 0.31%, 2013학년도 0.66%, 지난해 0.58%로 1%를 넘지 않았지만, 올해 4.3%로 치솟아 한 해 만에 난이도가 널뛰기를 했다.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영어 만점자 비율도 3.37%로 수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물수능’ 영어로 평가받은 2012학년도 2.67%보다 0.7%포인트가 높다.

반면,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선택한 국어B형의 만점자 비율은 0.09%로, 2011학년도 언어영역 0.06% 이후 가장 낮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비율은 국어A형 132점(1.37%), 국어B형 139점(0.09%), 수학A형 131점(2.54%), 수학B형 125점(4.30%), 영어 132점(3.37%)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전 영역 만점자가 2

명 탄생했다. 광주 인성고 박현준군과 순천매산고 정대승군이 자연계열에서 전 영역 만점을 받았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국어B형 139점은 지난해 131점보다 8점이나 많아 매우 까다로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A형 129점, 국어B형 130점 ▲수학A형 129점, 수학B형 125점 ▲영어 130점이다.

출제 오류에 따른 복수정답 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는 전체 응시자 3만933명 가운데 만점자가 64명(0.21%)에 그칠 정도로 어려웠다. 최고 표준점수는 73점이고, 1등급 비율은 5.57%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정시모집이 치열할 것으로 예고됐다. 국·수·영 1등급 내 최고점과 최저점 점수차는 인문계는 지난해 17점에서 올해 13점으로, 자연계열은 17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

임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진학사 등은 이날 수능 성적 결과를 분석,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선을 530점(표준점수 800점 만점 기준), 사회과학계열 529점, 의예과 529점, 생명과학부 524점으로 추정했다.

연세대는 경영학과 529점·언론홍보영상학부 527점·의예과 528점, 고려대는 경영대학 529점·의예과 527점, 이화여대는 초등교육 522점, 성균관대는 글로벌경영 526점, 한국외국어대는 LD학부 527점 등으로 각각 내다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비리 백화점’ 국립종자원 ▶6면

컬처&피플 철학자 이주향 ▶17면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2일 오전 최고적설량 7.3cm를 기록하며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가로수에 함박눈이 쌓인 광주 남구 구동 거리를 행인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광주 지방기상청은 “눈은 3일 낮 한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으며 예상적설량은 3~10cm”라고 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5년간 17조5천억 투입 ‘삶의 질’ 높인다

정부, 총 165조원 투입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정부가 165조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일자리 22만개를 만들고 생산액을 286조원을 늘리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광주는 첨단산업 중심의 발전과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서남권 교통 물류 중심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한 문화중심도시,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은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태평양 게이트로서의 지정학적 잇점을 살려 섬, 해안선, 갯벌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허브 조성, 해양레저 장비 산업 육성, 흑산도 공항 건설, 기업도시 개발을 비롯한 지역연고 중소기업 고도화, 친환경 농산물 및 수산식품 산업 단지 조성 등에 9조20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 등이 미흡해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광주	첨단산업·서남권교통물류 중심지 문화 중심도시·자동차산업밸리 등 8조 3000억원
전남	해양관광허브·흑산도 공항 건설 친환경 농수산단지 조성 등 9조 2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18년까지 총 165조원을 투자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

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투입 예산은 국비가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 등이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발전 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예산 375조4000억…12년만에 시한내 처리

광주 국고반영 1조6585억

전남은 5조3247억원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6000억원 순삭감됐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5.5%)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본회의에서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고, 본회의에 자동부인된 정부 원안을 폐기했다.

광주시의 2015년도 국비지원 사업비는 이번 국회 심의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499억원이 추가 반영된 1조658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1조5649억원보다 936억원(6.0%)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사업은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58건 145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는 특히 신규사업으로 민선 6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조경량 고강성 차체사

시부품 기술개발과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CT연구소 독립청사 신축, 호남학 호남진 흥원 건립 예산 등을 확보했다.

전남도의 국고예산 반영액은 5조3247억원으로 2014년(4조7989억원)보다 5258억원(11%)이 늘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 4조9918억원에서도 3329억원이 증액됐다.

전남도도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국도 남단의 동서와 전남도의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됐다.

또한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과학로켓센터 건립, 흑산도 여객터미널 신축,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 등 다양한 속원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예산부수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本 社 人 事

▲程厚植：편집국장

▲奇賢鎬：수석논설위원

<12월 3일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생생수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우리의 수자원 주암호

우리 모두 광역상수원의 지킴이가 되어
후손들에게 깨끗한 주암호를 물려줍니다.

